십자가 우주인

(롬16:1~27)

1.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3.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배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17.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우주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비행계획이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프로젝트가 사람을 태워서 우주선을 발사하는 최초의 우주비행계획이었습니다.
1950년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60년대에 실행이 된 계획인데, 본래는 이 머큐리 프로젝트에서 쏘아 올릴 우주선의 설계도 안에는 우주선에 창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문을 만들 경우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주선의 강도가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창문을 안 만들었다고 해요.
그랬다가 우주비행사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우주비행사들이 완전히 드럼통 같이 사방이 꽉 막힌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몇날며칠을 지낼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심리적인 변화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미쳐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안 된다, 창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메라를 탑재할 계획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우주선을 만드는 설계자들의 성공적인 우주선 설계를 위한 관건 중의 하나가 우주선의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1온스의 무게조차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큰 카메라를 탑재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에서 배제해버린 모양이에요.
그것을 또 우주비행사들이 반대합니다.
기대가 잔뜩 부풀어 있겠지요, 우주 속에 들어가서 볼 때 어떻게 보일 것인가?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구에요.
지구가 시작해서 아담서부터 이 머큐리 계획이 있을 때까지 지구를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구에서 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 천군천사들 말고는 이 지구 위에 사는 사람 살았던 사람 중에서 지구를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카메라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를 바꿨다는 겁니다, 창문도 만들고 카메라도 탑재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머큐리 우주여행계획에 의해서 첫 번째로 우주선에 탑승해서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우주인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우주비행사가 있었습니다.
'술탄 빈 살만 알사우드'라는 이름의 우주비행사가 이 첫 번째 우주여행 후에 한 말 한 마디가 너무나 깊고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던 겁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지구를 바라볼 때, 우리 모두는 각자가 자기 나라를 가리켰다, 3일째와 4일째 되었을 때는 각자가 자기 나라가 속한 대륙을 가리켰다, 5일째가 되자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지구밖에 없었다."
그 1960년대 초만 해도 '글로벌'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처럼 회자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구촌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을 때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 지구를 봤을 때 그 에메랄드빛의 아름다운 물이 가득 찬 이 별을 바라보면서 이 우주인들이, 첫째 둘째 날에는 전부 자기 나라가 어디인가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셋째 넷째 날에는 자기 나라가 속한 대륙의 모습이 진짜 우주에서 볼 때는 어떤 모습일까를 바라봤던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이후부터는 나라와 대륙과 경계를 초월한 하나의 지구로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돼버린 겁니다.
이것 참 대단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프로젝트 하나를 제안합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박 근혜 대통령, 김 정은 북방위원회 위원장,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 일본의 아베 수상, 이 네 사람을 우주선에 태워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한 달쯤 같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북한의 도발도 없어질지 모르고, 고구려나 발해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 속으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역사왜곡 노력도 무의미한 것으로 들릴 수도 있고, 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라든지 아베 수상의 잘못된 국수주의, 이런 것들이 다 고쳐질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아! 첫째 둘째 날에는 각자 자기의 나라를 가리키고, 셋째 넷째 날에는 그 나라가 속한 대륙을 가리키고, 다섯째 날이 넘어가서는 오직 하나의 지구가 머릿속에 남게 되었다!

여러분!
신앙인의 일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지구를 보는 것이에요.
단지 지구 바깥으로 나가되 몸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주선이 아니라 무엇을 타고 지구 바깥으로 나갑니까?
십자가를 타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타면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이 지구 안에 있는 어떤 것들, 어떤 일들, 어떤 사람들에 붙어있는 것,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것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왜? 하나님 한분에게만 마음을 다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운명은, 그 마음이 그것이 가족이라도 심지어 내 목숨에조차도 가 붙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게 십자가사건이라서 십자가는 우주선입니다.
단 우리 몸이 아닌 우리 마음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우주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십자가 우주인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머큐리 계획에 포함되었던 우주선을 타고는 지구 궤도 바깥의 우주에 머물게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어디에 머물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이 지구 안에 있지만 우리 마음은 지구 바깥으로 나갔다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지구 바깥의 우주 공간 속, 그 허허로운 공간 아무데나 있다는 게 아니라, 지구 바깥에 영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도착하게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얘기에요.
우리 마음이 지구 바깥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지구를 바라보게 되는데, 진짜 우주비행사인 우주인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우주인들이 우주로 나가서 우주를 바라볼 때는, 지구 위에 서서 우주를 바라볼 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신비한 것은 지구인 것입니다, 지구를 본 적이 없으니까.
우주에서 북극성을 본다든지 북두칠성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지구에서 볼 때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지요, 우주 전체를 볼 때 우주선을 타고 이동한 거리 자체가 먼지 하나만큼도 안 되는 것일 테니까.

그런데 십자가 우주인에게 보이는 것은 지구뿐이 아니라 십자가 우주선을 타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영역에 도착하게 되면 마음에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보는 그 마음으로 지구를 보는 겁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인들이 지구를 바라볼 때 나라와 경계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우주인들이 지구를 바라볼 때도 나라와 경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십자가 우주선을 타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가서 지구를 바라볼 때 내가 한국사람이라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으면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과 로마인을 신앙 안으로 불러들이는 데에 별다른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귀족들이나 창기나 과부 같이 힘없는 사람들이나 세리와 같은 매국노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이 지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경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주인들이 지구를 볼 때와 마찬가지이죠.
지구를 볼 때 내 나라의 의미는 이틀밖에 지탱이 안 됩니다.
내 나라가 속한 대륙도 그 의미가 4일밖에 지탱이 안 됩니다.
지구 밖에서 볼 때는 김 구 선생님도 독립투사도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지구를 바라볼 때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에요.
오늘 로마서에서 30명에 가까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인사를 드리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묘사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게 16절까지 문안인사를 드리는 중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와 '주 안에서'라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ㅇㅇ에게 문안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ㅇㅇ에게 문안한다.'
30명 가까이의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 동안에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이 아홉 번밖에 기록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삼심 명에 가까운 모든 사람에게 다 사도바울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에 이렇게 모든 사람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않고 전부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쓰나.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삼십 번 가까이 이 구절을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아홉 번 반복했지만, 사도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그들에게 문안인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사도바울의 신앙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에서 나오는 신학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은 지구 바깥이에요.
왜 지구 바깥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가 마지막 목표였고, 그 십자가 이후에 형성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지구를 떠나셨다는 얘깁니다.
떠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지구를 떠난 자들이 향해야 될 마음의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마음의 방향을 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구 바깥에 존재하는 우주와 같은 영역이 하나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이 땅에 살면서 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지구 바깥에 만들어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놓으셨던 지구 바깥의 영역 안에 우리 마음이 머물고 있는 자들이고, 교회란 바로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보내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100억 1000억을 들여 가지고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세 군데의 가정교회가 거명이 됩니다.
이 당시의 교회 형태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로마교회라고 하면 로마교회 교인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예배당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밖에 없었어요, 가정을 중심으로 몇 개의 가정교회가 로마시내 안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게 로마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몸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앞서서 중요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회라는 것은 마음이 예배당에 모이기 전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역은 지구 바깥에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지구를 바라볼 때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감이 있을 것이에요.
그 감으로 사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우주인들처럼 그냥 우주를 바라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지구를 바라보는 게 대단한 일이었지만, 우리 십자가 우주인들은 하늘을 보면서 지구를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늘에 다 붙어있는 겁니다.
하늘을 갖고 싶고 내 기쁨과 만족은 하늘에서만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보니까 여기의 나라와 경계와 신분과 빈부와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global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참된 소속감입니다.

지구 바깥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영역,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영역에 마음을 둔 채로 지구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입니다.
마음이 지구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중국에 있든, 마음이 지구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민족과 나라와 나이와 성별과 빈부와 신분에 상관없이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

녀로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보이는 교회, 그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16절 17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배만 위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 배만 섬긴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마음이 이 몸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지구를 떠나 지구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고, 딱 몸에 붙어있어서 자기 빈 마음을 몸과 몸을 통해 접하는 이 지구로부터 채워 넣으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가르치는 자리, 목사의 자리에 서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에요.
자기 배만 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비워진 공간을 몸을 통해 접하는 이 지구 안에서 채우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 지상에서의 비전, 이 지상에서 이룰 꿈, 이 지상에서 부자 되고, 오래 살고, 성공하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의 의미를 밝히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배만 위하는 아첨하는 자요, 교활한 말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반교회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여간 누구든지,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교황도 마찬가지에요, 누구든지 간에 이 지상에서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려는 말을 하는 모든 사람은 다 반교회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문안인사가 가득 들어있는 이 마지막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소속감의 문제를 점검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ㅇㅇ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문안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모든 일상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떠나서는 삶이 없었던 것이에요.
완전히 십자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바깥에 나가 있는 마음으로 이 지구를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 거명된 사람들 중에는 황실에 속한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고, 노예를 소유한 평민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마음이 지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신분과 출신과 나라와 민족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나라와 민족과 신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이 무

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의 상승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신분을 이 지구 위에서 높이시려면 높이실 것이고, 필요 없으면 낮추실 것입니다.

명품도 마찬가지에요, 여러분, 걸려 넘어지면 안돼요
제가 자꾸 명품얘기 하고 외제차 얘기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명품도 주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뜻에 의해 만들어진 인생 중에는 솔로몬 같은 사람도 있지 않아요?
제 말의 요지는 명품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다는 그 마음상태를 문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명품을 주실 수도 있지요.
왜 명품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외제차를 탈 수도 있지요, 하나님 뜻이면.
외향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말하는 본래의 뜻은 외제차가 아니면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만족해서 외제차가 없어도 되는 사람일 경우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외제차를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외제차 타고 다니는 목사님, 명품백 들고 다니는 권사님을 함부로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속을 우리는 모르니까.
단지 나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내 배만을 위하는, 이 지구 안에서 명품이 없으면 안 되고, 이 지구 안에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마음가짐이 다 참 교회의 소속됨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십자가 우주인입니다.
지구 바깥에 만들어진 '그리스도 안' '주 안'이라고 하는 영역에 마음을 두고, 하늘을 보며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글로벌한 영적의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우주인답게 우리 마음을 지구 바깥에 두게 하심으로 날마다 지구에 대해 죽어서 오직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하늘로부터만 찾기를 소원하고, 또 찾으며 살면서 그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영적 지구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